| 불자 세상보기 |

청소년 도박은 질병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피해자 없는 범죄, 도박
성인들의 문제로 여겨져
스마트폰으로 쉽게 중독돼

청소년 죄의식 없이 일탈
단기 쾌락주의 성향 키워
성인 돼서도 습관 남아

청소년 문화로 봐선 안돼
"치유 골든타임 지켜야"

한국도박분제관리센터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전국 중고등학생 일부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의 해당학년 학생 전체의 1.1%, 약 3만여 명이 도박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인 위험수위 이상의 도박증세를 보이는 문제군에 해당되고 추정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훨씬 더 높은 5.1%의 문제군에 해당되었으며, 도박에 몰입한 상태인 위험군도 20%나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도박이 더 이상 기성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기성세대의 도박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의 하나인 도박이 전통적으로 성인세대의 문제로만 여겨졌으나 이제는 세대를 넘어 전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도박이 급속하게 청소년층을 파고들었을까. 우선 도박세계로의 진입이 너무나 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 중고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에게까지 도박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때와 장소에 거의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도박의 특성에 기인한 바 적지 않다. 우선 도박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도박이 젊은이들의 놀이요 문화적 전통이라는 오해가 깊다.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할 수 있어서 타인에게 발각되기 어려우며, 도박도 하나의 심각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도박중독과 의존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중독성은 특히 충동조절이 쉽지 않은 청소년들이 빠져나오기는 더 어려우며, 또 하나 청소년일탈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청소년 도박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모방과 자기 과시적 행동으로 친구를 중시하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파고들기 쉬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박 게임의 방식도 점차 단순해지고 쉬워져서 요즘 청소년들의 특징 중 하나인 단기 쾌락주의적 성향, 즉 '복잡하게 두뇌 싸움을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게임의 특징도 한 몫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도박, 또는 도박중독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도박이 단순히 중독에 그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 건강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중독에만 그치지 않고 제2, 제3의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소위 '한탕주의' '기회주의'에 물들어 건전한 노동과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사대상 학생들의 상당수가 성인이 되어서도 도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곧 청소년 도박이 청소년 시기의 성장통이나 지나가는 과정으로 끝나지 않고 성인세대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알려진 강력범죄의 적지 않은 사례에서 범행의 동기가 도박을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서였단 진술들이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은 날로 심각해지지만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로만 치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릇 모든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 해결책을 사후적으로 찾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옳음에도 예방적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이 문제는 더 악화, 심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 아니, 우리 학생은 그럴리 없다'는 학부모와 학교의 그릇된 생각과 판단으로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마는 것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도박이 '하우스라는 컴컴한 도박장에서 화투나 카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모바일 게임 등을 통해 일상 활동처럼 되고 생활에 가까이 있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은 성인도박에 못지않게 살피고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요 과제이다.

社說

不法 없는 선거문화 정착 기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가 교구선거관리위원회, 교구 호법국장단, 공명선거위원단 등을 망라해 '공명정대한 총무원장 선거 실현 선포식'을 실시했다. 승가화합과 모범적인 선거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선거 SNS신고센터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총무원장선거에 앞서 중앙집행부를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가 함께 이 같은 움직임을 펼친 것은 과거에 빗대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과거에도 공명선거위원단을 운영한 적은 있으나 극히 소규모에 불과했다.

이번 움직임이 한편으로는 진정 공명정대한 총무원장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일련의 청정승가운동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불교계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행위들이 있었는지 가늠케 한다.

기실 불교계서는 총무원장선거뿐만 아니라 교구본사주지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금권선거·매관매직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어왔다. 이와 더불어 폭로·괴문자 남발·흑색선거 등 불자들의 신심을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였다.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지금, 과거와는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선거 국면에 접어들어 종단 내외서 갈등이 불어지고 있다. 바로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거제도의 불신은 선거과정서 이뤄지는 부정행위, 그리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부실한 관리감독으로부터 시작됐다. 선거문제에 대한 자정능력이 떨어진다는 뼈아픈 지적을 돌이켜볼 때 이번 움직임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갈등을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 부디 공염불로 끝나지 않길 기대한다.

불교복지 아젠다 기구 창설해야

최근 복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아동이면 아동 등 계층별 복지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를 수용하는 방면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복지가 중점 진행됐다면, 복지수요가 늘어나며 마을복지, 지역복지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불교계가 수탁운영하는 복지관의 운영방식도 변모하고 있다. 수영장과 목욕탕, 심지어 골프장까지 건립 과정에서 사전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용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노인종합복지관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세워진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하루 이용객이 2500명에 달한다.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기존 불교계 복지관이 따라 잡기 위해서는 불교계 복지관 간의 연계활동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복지 아젠다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한 종단의 기구들은 지도자 협의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아젠다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지역별 연대는 개별 복지관에 맡겨져 있다. 사회 흐름에 맡게 적극적으로 불교복지 트렌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종단 주도 하에 권역별 아젠다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복지 수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맞춘 복지관이 지역민의 사랑을 그리고 차후 수탁과 운영을 보장한다. 불교복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지역의 수요를 빠르게 파악하고 함께 연대해 대응해 나가는 기구 창설이 시급하다.



空으로 본 세상만사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우리는 윤회하는가

사찰에 강연 갈 때면 난 항상 신도님들께 농담 삼아 여쭤본다. "윤회를 믿습니까?"라고. 그러면 자신 있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하는 경우는 잘 못 보았다.

주지하듯이, 윤회는 불교의 전유물은 아니다. 불교 태동 이전의 고대 인도인들의 공통된 사후(死後) 관념이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대지의 곡물을 열매 맺게 하고, 그것을 사람이 먹어 생명을 영위한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러다 죽음을 맞이하면 화장(火葬)하여 산산이 흩어진 그 몸은 하늘로 올라가 다시 빗물이 되어 곡물을 키우고, 그 곡물은 또 다른 사람이 먹게 되고, 그 사람 역시 죽음과 함께 빗물이 되어 곡물을 키우게 되고…. 이러한 순환의 법칙에서 고대 인도인들은 끝과 시작이 물고 물리는 윤회의 관념을 발전시켜 나갔다. 즉, 윤회는 자연 현상을 세밀하게 관찰한 고대 인도인들의 지혜의 산물이었고,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 역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같은 윤회의 관념을 받아들였다.

윤회론의 발생에 관한 이러한 통시적 고찰은 인도학-불교학을 근대적 학문 체계로 만든 유럽학자들에 의해 알려졌다. 이들 위대한 인도학자들 중에는 가톨릭 사제도 있듯이, 그들은 철저한 고고학·문헌학자들이었다. 따라서 불교를 종교가 아닌 학문으로 접한 그들에게 윤회는 하나의 상징체계 즉, 인과응보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장치로 해석되었다.

내가 아는 불교학자들 중에서도 불교인이지만 윤회를 상징적 의미를 띤 신화적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는 분이 많다. 그런 이유에서, 자칭 '윤회파'인 나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과학적' 견해를 빌려 윤회를 논증하려 하는데 그때 늘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안 스티븐슨(Ian Stevenson, 1918~2007) 박사 이야기이다.

버지니아 의대 정신과 주임 교수를 지낸 그는 1961년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 있음을 알고 그 사례를 인도 등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실지(實地) 대면 조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에 의하면 윤회 관념은 고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주민들에게서 보고되고 있고, 아이들은 말을 시작하는 2~5세 사이에 전생 기억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한다. 그런데 윤회 관념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말을 믿어주기도 하지만, 현재는 윤회를 거부하는 종교나 문화를 가진 곳이 대부분이므로 '아이들의 상상력' 정도로 치부된다. 그래서 5~8세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전생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만두고, 성장함에 따라 그 기억도 사라진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를 약 3000여건 이상 조사, 수집한 그는 이를 바탕으로 1987년에 방대한 사례와 함께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ves)〉을 출간하였다. 물론 그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지만, 과학자로서 그가 책 서두에서 남긴 말이 늘 기억에 남는다.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윤회라는 것을 생각조차 않았던 사람들이 이러한 관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만이라도 한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부산지사 : (051)405-9402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전북지사 : (063)910-8977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